

#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8년 상반기 건설경제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98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생산면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을 보였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실질소득의 감소와 고용불안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고 고정투자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모두 부진을 보이는 등 생산 및 수요면에서 전분기에 이어 침체 국면을 탈피하지 못했다. 또한 수출도 전분기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98년도

2/4분기중 실질국내총생산(실질 GDP)은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민간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조정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아파트, 단독주택등 주거용 건물건설은 전년동기대비 10.6%감소하였으며 공장, 사무실등 비주거용 건물건설도 부진을 보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9%감소하였다. 또한 토목건설도 전력시설, 농림토목, 상하수도 등이 부진하여 2/4분기중 민간건설은 전체적으로 14.9% 감소하였다. 한편 공공건설은 지하철 건설이 호조를 보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기간	97년				98년		
		1/4	2/4	3/4	4/4	년간	4/1	2/4
건설업		-0.9	2.5	4.8	3.6	2.8	-7.6	-12.1
민간건설	합계	-1.7	-0.1	1.9	0.2	0.2	-8.1	-14.9
	주거용	-7.8	-4.5	-6.2	-0.9	-4.9	-2.4	-10.6
	비주거용	-3.2	-5.2	-0.3	-7.6	4.0	-9.3	-17.9
	토목건설	16.2	11.2	17.4	6.9	12.0	-18.8	-23.0
정부건설		1.3	9.5	7.5	11.1	8.5	-6.2	-5.0
건설투자		0.8	1.8	3.8	3.7	2.7	-7.7	-13.2
건물건설투자		-3.7	-3.3	-2.5	-1.8	-2.9	-5.7	-12.7
기타건설투자		11.3	8.9	12.5	9.1	10.2	-11.6	-13.8

자료 : 한국은행 '1998년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였으나 공공건물, 상하수도, 도시토목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투자는 전분기 7.7%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진 1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공항 및 철도시설 건설이 활기를 띠었으나 전력, 상하수도, 도시토목 등이 저조하여 13.8% 감소하였다.

건설교통부의 '98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동향'에 의하면 '98년 상반기중 전국의 총 건축허가 면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축부문의 투자가 부진하여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공업용허가면적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주거용허가면적도 부진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832천㎡에 비해 44.3% 감소한 30,539천㎡가 허가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 2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사업 승인 면적이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3월이후 큰 폭의 감소세로 반전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261천㎡에 비해 35.2% 감소한 18,947천㎡가 허가되었다.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공장 신증설과 설비투자를 기피하여 전년 허가된 4,824㎡에 비하여 ½ 수준에 머문 1,425㎡가 허가되었다.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5,811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805천㎡에 비해 57.9% 감소하였으며, 문교·사회용등 기타 건축허가 면적은 37.3% 줄어들었다.

한편 금년 상반기중 건설된 주택은 총 166,142호로서 전년 동기의 280,252호 보다 40.7% 감소하였으며, 이중 공공부문은 60,165호로서 지난해 98,035호보다 38.6%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은 105,977호로서 지난해 182,217호보다 41.8%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8,773호가 건설되어 지난해보다 16.0% 감소하였고, 지방은

(표 2)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

구 분 용도별	1/4 분기			2/4 분기			누계(1~6월)		
	'98	'97	대비	'98	'97	대비	'98	'97	대비
전 체	17,612	22,853	-22.9	12,926	31,978	-59.6	30,539	54,832	-44.3
주거용	11,324	11,674	-3.0	7,623	17,587	-56.7	18,947	29,261	-35.2
상업용	3,182	6,009	-47.8	2,629	7,704	-65.9	5,811	13,085	-57.9
공업용	751	2,334	-67.8	674	2,489	-72.9	1,425	4,824	-70.5
기 타	2,355	2,746	-14.2	2,000	4,197	-52.3	4,356	6,942	-37.3

자료 : 건설교통부

[표 3]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당 월 기 준			누 계 기 준		
	'98.6	'97.6	전년대비	'98.1~6	'97.1~6	전년대비
계	29,516	56,770	-48.0	166,142	280,252	-40.7
수도권	19,929	22,135	-10.0	88,773	105,650	-16.0
서울	2,149	8,697	-75.3	125,676	34,836	-55.0
인천	1,898	562	23.8	6,715	11,859	-43.4
경기	15,882	12,876	23.3	66,382	58,955	12.6
지방	9,587	34,635	-72.3	77,369	174,602	-55.7
부산	220	818	-73.1	14,757	12,264	20.3
대구	30	2,416	-98.8	336	22,030	-98.4
광주	-25	6,693	-100.4	2,762	16,625	-83.3
대전	51	738	-93.1	3,422	4,949	-30.9
울산	618	755	-18.1	1,949	4,045	-51.8
강원	2,702	3,886	-30.5	9,315	8,714	6.9
충북	1,100	2,222	-50.5	7,050	11,744	-40.0
충남	741	2,377	-68.8	7,876	19,133	-58.8
전북	114	1,393	-91.8	1,907	13,718	-86.1
전남	1,258	1,432	-12.2	8,295	11,037	-24.8
경북	1,276	4,606	-72.3	8,214	22,077	-62.8
경남	1,502	6,676	-77.5	8,627	26,263	-67.2
제주	-	623	-100.0	2,859	2,003	42.7

[표 4] 98년도 상반기 건설계약액 현황 및 하반기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97년도									
합 계	797,416	337,331	460,085	354,133	272,830	81,303	443,283	64,501	378,782
상반기	394,109	157,518	236,591	148,428	119,754	28,674	245,681	37,764	207,917
하반기	403,307	179,813	223,494	205,705	153,076	52,629	197,602	26,737	170,865
98년도									
합 계 (증감율)	517,918 (-35.1)	295,262 (-12.5)	222,056 (-51.7)	334,769 (-5.5)	272,214 (-0.2)	62,555 (-23.1)	183,149 (-58.7)	23,648 (-63.3)	159,501 (-57.9)
상반기 (증감율)	240,548 (-40.0)	123,772 (-21.4)	116,776 (-50.6)	137,249 (-7.5)	111,474 (-4.4)	25,775 (-10.1)	103,299 (-60.0)	12,298 (-67.4)	91,001 (-56.2)
하반기 (증감율)	277,370 (-31.2)	172,090 (-4.3)	105,280 (-52.9)	197,520 (-4.0)	160,740 (5.0)	36,780 (-30.1)	79,850 (-59.6)	11,350 (-57.5)	68,500 (-59.9)

\*하반기 전망은 정부와 IMF간 협의내용과 민간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98년 경제전망자료를 토대로 CDP성장률 -5%, 환율(평균) 1,400원, 회사채 수익률(연평균) 17%대의 가정하 전망한 것임

자 료 : 건설협회

77,369호로서 5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의 주택건설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월과 2월의 감소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며 3월 이후 IMF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감소율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8.6월 중에는 29,516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5월보다 27.5% 증가하였고, 지난해 6월보다는 48.0%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929호가 건설되어 전년동기 22,135호보다 10.0% 감소하였으며 지방에서는 9,587호가 건설되어 전년동기 34,635호보다 7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부분이 10,479호를 건설하여 전년동기의 16,223호보다 35.4% 줄었고, 민간은 19,037호로서 전년동기 40,547호보다 53.0% 감소하였다.

## 2. 199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건설협회의 9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건설공사 총 계약액은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27조7천3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공공부분은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한 19조7천520억원이 민간부분은 전년동기 대비 59.6% 감소한 7조9천85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토목부문 건설경기는 민간공사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감소가 예상되고 민자유치사업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공사는 도로, 지하철, 인천국제공항등의 발주가 예상되어 소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17조2천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경기는 정부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민간 및 공공건축공사가 크게 감소, 24조1천1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공공공사는 월드컵경기장 신증축공사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안산등지의 아파트 단지등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부동산경기의 위축에 따른 아파트 건설계획의 수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0.1% 감소한 3조6천78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공사는 정부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침체된 소비 심리의 영향으로 주택수요를 유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사계약도 전년동기 대비 59.9% 감소한 6조8천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3. 1998년 상반기 레미콘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 1) 1998년도 상반기 레미콘 산업 동향

본격적인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98년도 상반기중 건설업에 경우 주택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건설마저 축소되면서 급격한 물량 감소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레미콘 산업은 일부 중견업체를 포함한 중소레미콘업체를 중심으로 97년말부터 연쇄부도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장가동률 저하, 레미콘 출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져 98년도 상반기중 전국 562개업체 729개공장에서 총 46,586,463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61,829,577m<sup>3</sup>보다 24.65%감소하였으며 민간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를 반영, 민수의 감소폭이 관수보다 두드러지면서 민·관

수간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고금리, 고물가, 기업 구조조정등에 의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및 건설투자의 위축과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과 연쇄 도산, 이와 관련된 전자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공사가 상반기중 조기 발주되었고 도로, 교량, 항만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등 전년에 계속되던 공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충북, 광주·전남 지역등 일부 지역에서의 관수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97년 말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던 민간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정부가 미등기 전매허용, 수도권지역의 분양가 자율화 확대, 전세반환금 대출, 표준건축비 수시조정등 관련 규제의 완화, 주택자금지원등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등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극도로 침체된 민간건설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 민수의 출하량이 전 지역에 걸쳐 20%이상 감소됨으로써 관수용 레미콘이 전년에 이어 전체 레미콘산업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수는 전년 상반기 51,345,916 m<sup>3</sup>대비 31.16% 감소한 35,347,641m<sup>3</sup>를 생산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한 관수는 총 11,238,822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10,483,661m<sup>3</sup>대비 7.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의 출하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대구·경북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택업체인 청구, 보성을 비롯한 지역 중견건설업체의 연쇄적인 부도와 이와 관련된 레미콘 및 기타 전자재업체부도가 속출하였으며 가동율이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민수는 전년 6,187,731m<sup>3</sup>에 절반 수준인 3,134,769m<sup>3</sup>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수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체육시설, 기타 도로공사등에

(표 5) 98년 상반기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8년 6월30일 현재)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치플랜트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기 수	생산능력(B/P)			
				m <sup>3</sup> /hr	천m <sup>3</sup> /년		
서울·경인	106	157	262	48,180	96,360	7,575	172,660
강 원	70'	80	85	11,700	23,400	1,176	38,870
충 북	44	47	56	7,770	15,540	949	25,900
대전·충남	74	92	122	19,224	38,448	2,106	85,440
전 북	47	51	65	10,280	20,560	1,137	39,410
광주·전남	64	78	93	15,180	30,360	1,894	53,110
대구·경북	91	102	134	20,964	41,928	2,362	97,110
부산·경남	94	107	153	24,404	48,808	3,175	109,865
제주	15	15	19	2,970	5,940	310	10,130
합 계	562	729	989	160,672	321,344	20,684	632,495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 임.

[표 6] 98년 상반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 현황

(단위 : m<sup>3</sup>, %)

지 역	수 요 별	'98. 상반기	'97. 상반기	증감율	점유율
서울·경인	민 수	15,768,212	20,619,511	-23.53	40.11
	관 수	2,918,452	2,817,907	3.57	
	계	18,686,664	23,437,418	-20.27	
강 원	민 수	1,578,569	2,276,769	-30.67	4.94
	관 수	722,601	749,004	-3.53	
	계	2,301,170	3,025,773	-23.95	
충 북	민 수	1,487,692	2,189,819	-32.06	4.30
	관 수	517,759	396,707	30.51	
	계	2,005,451	2,586,526	-22.47	
대전·충남	민 수	3,507,580	5,189,142	-32.41	9.80
	관 수	1,057,434	1,165,145	-9.24	
	계	4,565,014	6,354,287	-28.16	
전 북	민 수	1,677,268	2,231,921	-24.85	5.34
	관 수	811,258	812,590	-0.16	
	계	2,488,526	3,044,511	-18.26	
광주·전남	민 수	2,940,319	4,046,842	-27.34	9.42
	관 수	1,448,036	1,278,106	13.30	
	계	4,388,355	5,324,948	-17.59	
대구·경북	민 수	3,134,769	6,187,731	-49.34	10.22
	관 수	1,628,423	1,411,658	15.36	
	계	4,763,192	7,599,389	-37.32	
부산·경남	민 수	4,895,529	8,017,672	-38.94	14.52
	관 수	1,868,082	1,614,468	15.71	
	계	6,763,611	9,632,140	-29.78	
제 주	민 수	357,703	586,509	-39.01	1.34
	관 수	266,777	238,076	12.06	
	계	624,480	824,585	-24.27	
합 계	민 수	35,347,641	51,345,916	-31.16	100.0
	관 수	11,238,822	10,483,661	7.20	
	계	46,586,463	61,829,577	-24.65	

1,628,423m<sup>3</sup>가 출하되어 전년 1,411,658m<sup>3</sup> 대비 15.36%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몇몇 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으나, 진척이 느려져 상반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수 레미콘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민간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민수는 전년 8,017,672m<sup>3</sup> 대비 38.94% 감소한 4,895,529m<sup>3</sup>를 출하하였으나 관수는 공공공

사의 조기발주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5.71%증가한 1,868,082m³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어 총 6,763,611m³를 출하하여 전년동기대비 29.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전·충남지역(-28.16%), 제주지역(-24.27%), 충북지역(-22.47%)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상반기 레미콘산업은 민간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금융 위기로 인한 대규모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신규발주물량의 감소 및 기존 현장의 공사중단등으로 레미콘 출하물량의 감소폭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 레미콘산업이 심각한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또한 전년에 이어 민수용 레미콘의 급격한 감소에 비해 관수용 레미콘은 상반기중 조기발주물량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민·관수 출하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 2) 98년도 하반기 레미콘 수급전망 및 99년도 전망

하반기에는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신

규착공 공사의 감소, 중소 건설사의 부도와 미분양 주택의 장기적인 적체등 건설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수는 상반기보다 수요 감소폭이 다소 커진 전년동기 57,899천m³대비 39.1%감소한 35,260천m³를 출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소비될 관수 레미콘중 상당수가 상반기에 조기발주됨에 따라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 동기 13,469천m³대비 13.9%감소한 20,612천m³를 출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총 91,220천m³를 출하하여 전년 133,197천m³대비 31.5%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9년도 상반기에는 부동산 및 민간 건설경기 침체기조가 98년도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8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관수레미콘이 민수레미콘

(표 7) 98년도 하반기 레미콘 출하전망

(단 위 : 천m³,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sup>P</sup>			년 계 <sup>P</sup>		
	민수	관수	계	민수	관수	계	민수	관수	계
전국총계	35,348 (-31.6)	11,239 (7.20)	46,587 (-24.65)	35,260 (-39.1)	9,373 (-30.4)	44,633 (-37.5)	70,608 (-35.4)	20,612 (-13.9)	91,220 (-31.5)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8) 99년도 레미콘 출하전망

(단 위 : 천m³, %)

구 분	상 반 기 <sup>a</sup>		상 반 기 <sup>a</sup>		상 반 기 <sup>a</sup>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 국	44,521	-4.44	52,263	17.09	96,784	6.10

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9년 상반기중 레미콘은 98년 46,587천m<sup>3</sup>대비 4.44%감소한 44,521천m<sup>3</sup>를 출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레미콘수요가 큰 민간건축부문의 경기는 당분간 자금 및 부동산시장의 경색으로 회복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임에 따라 98년도와 같이 민·관주 성장율의 양극화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과 9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99년 상반기중 큰 가닥이 잡히면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미미하게 증가하여 99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98년 대비 17.09% 증가한 96,784천m<sup>3</sup>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 한해동안 레미콘은 98년도 91,220m<sup>3</sup>에 대비 6.09%증가한 96,784천m<sup>3</sup>를 출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98년도 상반기 건자재수급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1) 시멘트

상반기중 시멘트 내수는 IMF에 따른 정부의 긴축기조로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한 SOC투자의 축소 및 연기와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한 21,455천톤에 그쳤으며, 따라서 시멘트 생산은 생산시설이 크게 확충된 반면 시멘트 수요가 격감 한데서 오는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부문의 조업단축이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20.5%감소한 22,429천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 98년도 하반기중 시멘트 내수는 각종 건설관련선행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로 전년동기대비 33.3% 감소한 21,800천톤에 그칠 전망되며 시멘트 생산은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

[표 9] 98년도 시멘트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합 계
수 요	내 수 (전년비)	21,455 (-26.3)	21,800 (-33.3)	43,255 (-30.0)
	수 출 (크링카)	339 (-717)	721 (863)	1,060 (1,580)
	계	21,794	22,521	44,315
공 급	생 산 (전년비)	22,429 (-20.5)	21,731 (-31.2)	44,160 (-26.1)
	수 입	85	315	400
	계	22,514	22,462	44,560
재 고		1,937 (107.3)	1,462 (119.5)	

자료 : 한국양회공업협회



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생산설비의 조업단축은 하반기에도 계속되어 전년 동기대비 31.2% 감소한 21,731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 골재

98년도 상반기중 골재 수요량은 72,663천 m<sup>3</sup>로 전년대비 31.4%내외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중의 이러한 골재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른 것으

로 공공공사의 경우 조기발주가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민간공사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토개발원의 주요건설자재 수요전망에 따르면 98년 건설투자 전망치와 투입원단위를 이용하여 추정한 하반기 골재수요는 전년대비 32.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에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 골재수요 감소폭이 상반기보다 클것으로 전망된다.

